

“이타의 실천행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자유와 통일의 등불을 밝힙시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부처님이 어느 분이신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니 깨달음의 길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함께 가자고 부처님께서 보살의 신행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타인에게 널리 베풀고(布施), 인격적인 삶을 살며(持戒), 어떠한 고뇌도 견디어 내고(忍辱), 참살을 더해가는(精進), 살며 마음을 비우는(禪定), 그리고 함께 좋은 생각(智慧)으로 평화의 등불을 밝힙시다. 희망과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자유와 통일의 등불을 밝힙시다. 안락한 세상되게 정진의 등불을 밝힙시다. 우리의 부처님은 인류평화의 등불이십니다. 우리의 부처님은 진리복덕의 등불이십니다. 한 생각 깨달으면 밝은 등불이 하나 됩니다.

선업과 복덕이 충만하길

불교총지종 총무원장 법등 정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바로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있는 중생은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듯 애뜻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타의 실천행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을 돌아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는데 앞장섭시다.

공동체정신 살리는 봉축 만들자

(사)대한불교 원웅원(종)



종정 일공 스님

3천만 불교도와 국민 여러분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 삶의 자세와 이 사회현상은 어떠한지?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존엄은 실추됐으며 인류의 무한한 욕망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배금주의로 인해 윤리도덕은 황폐화 됐습니다. 부처님이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깨달음과 동체대비를 생활화하도록 각자 자리에서 한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생명 존엄의 사회적 가치가 보편화되는 깨침의 공동체를 구현해 나갑시다.

부처님 대광명 오늘 펼치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해안 스님



부처님 오심은 삼계에 대광명. 하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못보는구나. 애미 애미 간곳을 알면 내 갈 곳도 뻔히 알련만 빨치산의 피골음인가. 밤새도록 소쩍새 슬피울더니 올해는 진달래도 유난히 붉구나. 아! 다시 오지 않을 오늘도 앞산 구재봉에 황혼(黃昏)이 지네, 지옥(地獄)과 극락(極樂)은 불나방의 업연(業緣)이로다. 이등과 지옥을 단번에 쓰러버릴 부처를 쫓아 진혼의 차공양(茶供養)이나 올리고 온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즉설 주왕 뽕배라 뽕배라 봉축(奉祝)나팔이나 불자.

보배의 꽃이 활짝피기를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복덕이 구축하신 부처님오신날! 일체중생에게 보배의 꽃이 찬란히 피기를 염원하네. 보배를 품고도 보배인줄 모르는 중생들이여 어둠을 어둠인줄 모르고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여 밝음을 보아도 밝음인 줄 알겠는가 몸과 마음은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는 것을 벼랑으로 가는 길에서 큰 눈뜨고 보아 속히 피안 가는 길을 찾을 지니라.

마음 잡초 뽑는 노력을 기울이자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세상을 우러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찬탄의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나누신 참된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거울 비취 보십시오. 자신의 정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자신의 인행을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인행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은 예외일수 없고 부끄러움도 알아야 하고 인과의 무서움도 알아야 합니다.

분별의 번뇌 망집서 벗어납시다

(재)대한불교일명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금강불괴(金剛不壞) 무너지지 않구나, 금강이여! 여시불법(如是佛法) 부처님 법 또한 이와 같아라
단인력(但依人力) 다만 사람에 의해서 괴불괴야(壞不壞也) 무너지고 말고 하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더욱 더 분별하고 차별하는 번뇌 망집에서 벗어나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섭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불신충만아범계(佛身充滿於法界) 부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어, 보현일체중생전(普現一切衆生前)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 계시도다. 수연부감미부주(隨緣赴感未不周) 인연에 따라 감응하지 않는 곳이 없으나 이 항처차보리좌(而恒處此菩提座) 항상 본래의 자리에 계시도다. 진애하는 불자여러분! <중일야합경 제5권>에서 이르시길 '진리에 공양하는 사람은 곧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며, 진리를 본 사람은 곧 나를 본 것이다. 이미 진리가 있으면 내가 있나리' 고 하셨습니다. 부단한 수행정진을 통해서 성불하십시오.

한 뿌리란 마음으로 화합해야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법성의 실상은 깨달음에는 사람과 법이 따로 없어, 한 생각 착나에 아버지육의 업을 멀해 버리도다. 만약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여 중생을 속인다면, 스스로 발설지옥에 떨어져진 사겁을 지내리라. 계사년 부처님 탄일을 기하여! 지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과 극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부분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직면되고, 그것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선을 선택하는 자는 양심이요 악을 선택하는 자는 삿된 마음이다.

분별없는 도리가 불법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중도(中道)가 불(佛)이여라. 운(運)과 명(命)이 융합하여 운이 즉 명이요, 명이 즉 운인 것을 알고 살면 그 운명이 바로 부처의 삶이고, 선(善)과 악(惡)이 융합하여 선이 즉 악이요, 악이 즉 선인 것을 알고 살면 그 경계가 바로 부처의 경계이고, 시(是)와 비(非)가 융합하여 시가 즉 비요, 비가 즉 시인 것을 알고 살면 그 분별이 바로 부처의 분별이라고. 이 도리가 바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중도(中道)이다. 갈등과 대립이 소멸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행복의 시대가 도래(到來)되길 기원합니다.

인간존엄의 가르침 실천해야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익륜 스님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어루만지고 모두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계사년 부처님오신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지혜로 사회의 아픔이 치유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아들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은 존엄하며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 생존의 욕구를 버리고 연기의 인연 지혜를 배워야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보듬을 때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비로소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맑은 마음이 진정한 행복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심정등수(心淸等等水) 법계자연견(法界自然見) 삼계시방명(三界十方明) 하처불통달(何處不通達)
마음이 맑아 물처럼 맑으면 법계를 자연히 볼 수 있리. 삼계 시방세계가 밝아도다. 어떠한 곳이든 통달하지 아니하라. 물질위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맑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필연코 마음에는 때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의 세상도 때 묻지 않았으며 우리네 마음도 본래는 청정하였습디다.

부처님 삶 다시 새기는 기회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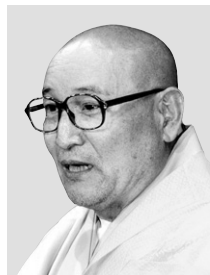


총무원장 도선 스님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모두가 기쁨과 환희로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빛이 어둠을 거두어 내뿜어 사바의 어두운 세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열반 25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을 기리는 것은 부처님의 삶 모두가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다시 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중생사회를 밝히려는 참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회하고 참회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중생 교화하라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진실한 마음 자세로 성실하게 중생을 교화하라. 그러면 부처의 세계가 따로 없다. 이모부장(爾謀不臧)이면 회지하급(悔之何及)이며 이견부장(爾見不長)이면 교지하의(教之何益)이리오
이심전척배도(利心專則背道)요 사의확칙멸공(私意確則滅公)이니라. 자신의 계획이 올바르지 못하면 회개할들 무엇하며 너의 생각이 좋지 못할 때 가르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모름지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도리에 빛나갈 것이고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면 공공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

지혜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어두운 세상 밝히고자 부처님께서 지혜의 등불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로 인해 나만 알고 나의 것만 소중하게 생각 하는 어리석음의 늪에서 벗어나 상대를 인정하고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이웃과 사회 온 세상이 밝고 평화로워 이대로 다 같이 살기좋은 부처님 세상 극락 정도입니다.

부처님 말씀 새겨 자유인 되자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사팔봉축의 기쁨이 온 국민과 함께하는 법향이 가득하시길 예배올리며! 이제는 특하면 시방세계를 볼 수 있는 IT시대에 살며 눈 한번 깜빡해도 구만리를 내다보는 천안통이 열린 시대입니다. 우리 사부대중들도 석가세존 강탄일을 맞이하여 불조의 한 말씀 아불교시는 생사해탈법을 깊이깊이 새겨 죽고 사는 법을 벗어나는 자유인이 됩시다. 나무대광불화엄경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길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부처님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바로 위대한 사상의 가르침 그 공덕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일찍이 전하는 마음뿐이로세. 물질이 풍요 속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사월초파일을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중생이 부처임을 자각해야

한국불교원웅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태어날 때는 무명의 업식으로 태어나지만 부처의 근본 종지는 누구나 그대로 여여 하여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깨달으면 법신의 기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데 있어서는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법신은 은연하여 오고감이 없이 온 누리의 광명이요 언제나 본체의 대기대용을 원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래 미혹하던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 이름 하지만 범부와 성인과 부처가 다만 이름일 뿐이며 차별된 이름과 모습과 선악은 모두가 분별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적멸의 대 자유인이 될 것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제법종본래(諸法從本來)로 상자적멸상(常自寂滅相)이라. 불자행도이(佛者行道已)하면 내세득작불(來世得作佛)하리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적멸상이다. 불자가 이 도리를 닦아 행하면 다음생에 부처가 되리라.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본래부터가 그대로의 적멸한 모습이다. 적멸하다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참된 법성을 갖추고 있는데 생멸의 상을 여이고 있는게 아니라, 바로 보고 알면 생멸상 이대도가 적멸상 인줄 사부처 바로 알아야 하며 우리네 삶, 이대도가 적멸이며 해탈이며 열반이로다.

대립과 갈등 치유하는 자세 갖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계사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무명을 씻고 지혜를 얻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고 자리아타의 정신으로 시방세계를 밝힙시다. 우주는 불보살님과 사생구류의 윤회와 무정물이 서로 주체적으로 교류하고 상충상입하면서 주변구족의 화엄세계를 연출하는 법계입니다. 이 축복된 우주에서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야가 희망적으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성숙한 화합의 모습을 갖추게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자비의 연등 밝혀 온 법계에 광명을 펼치자

자성 청정하면 중도실상이 확연

불교조계종 중정대행 혜인 스님



계율이 청정하니 우주가 성, 주, 괴, 공하고 인생은 생, 로, 병, 사를 거듭한다. 언제나 자성이 청정하면 중도의 실상이 확연하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워도 태양은 청정 법신이다. 밝은달을 구름이 가리워도 원만보신이다.

백십억 천만의 현상계가 석가모니불 아닌 것이 없도다. 하늘 위 땅 아래 부처님 법 아님이 없으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함께 하세. 하늘은 푸르고 남산은 우뚝 솟았다.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부처님 오심을 세상 사람들 기뻐하고 태평가를 부르니 동서남북이 극락이라.

법화장엄세계를 만듭시다

(사)현대불교조계종 중정 벽운 스님



하나하나의 등불이 무진등으로 이꽃 저꽃 잡화가 다 부처님 같은 고뇌 고통은 누구나 있기 마련 서로 공경 신뢰 위로 칭찬하는 그 마음이 참다운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오신 이 좋은날 과거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망'을 만들어 갑시다. 부처께서 엄화미소로 일러주시는 진리, 진아의 도리를 믿고 따라서 아름다운 법화장엄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실천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항상 하는 평상시의 말이 진짜 마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짝이 움트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자비광명의 날 불탄일을 다함께 경축합니다.

업연의 인연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열매가 맺으면 결국 떨어지고 씨앗이 대지가 떨어지면 결국 씨가 움트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 가듯이 편안한 실체가 없고 선악의 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업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연의 중함을 알아서 오늘 하루는 간절한 염원으로 부처님 전에 삼독을 끊어내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욕망서 깨어나 자비심 갖자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기산심해(氣山心海) 심강무성(深江無聲) 기운은 산과 같이 굳세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으며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는 않는다.

무릇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법을 수행하는데 있어 산과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어야 하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대할 때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수행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수행자의 마음을 갖고, 모든 생명들에게 큰 없는 자비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광명 불빛을 비춤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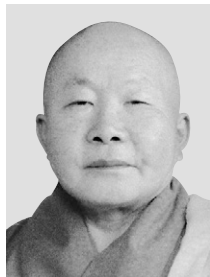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중정 봉진 스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연등 공양으로 왜 등불을 켜는 이유는 우리의 무명(無明)을 거두어서 참다운 영원적인 불성광명(佛性光明)을 빛내기 위해서 등을 켜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의 광명(光明)을 다시 우리가 우리 가슴에 켜는 날입니다. 이 광명은 우리의 마음에 불성을 지피는 불씨입니다. 이 불성(佛性)은 우주에 총명한 생명의 광명(光明)입니다. 우리의 주위와 이웃을 살펴보고 집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자비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구보리하화중생 실천을

(사)대한불교법상종 중정 자봉 스님



곳곳 삼라만상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 날로 행복하고 희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쌓으면 흩어지고 게으르면 실패하고 노력하면 성공하고 태어나면 죽어가고 수행하면 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하는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합니다. 처음은 어려워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고통도 놓아 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놓아 버리고 모두가 하나인 평온을 얻읍시다.

자비롭게 부처님 같이 살라

대륜불교조계종 중정 아신 수완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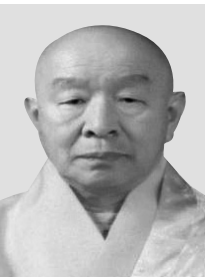


무릇 범부중생이 부처되지 못하는 까닭은, 불건전한 업연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니라. 팔만사천 법문에서 모두 이르기를 자비는 성불의 종자요, 삼업을 소멸하는 근본이라 하였으니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올바른 습관을 갖추어 범부중생을 벗어남이라.

선심자비 무척불통이니, 모든 일에 자비로움을 내어 놓는다면 일체제불이 그대를 기뻐하리라. 싸두 싸두 싸두

내가 없음 알면 삼독 없어져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산 스님



막여아심반(莫與我心伴) 무아자불(無我我自佛) 약장아작반(若將我作伴) 동족피아만(動即被我?)

나 자신과 짝하지 말라, 내가 없음을 알면 저절로 부처가 되느니라. 만약 나와 짝했다간, 결핍하면 나에게 속으리라.

부처님 오신 날을 모두가 봉축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라는 삼독을 버리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으니,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대선불교조계종 중정 진일 스님



"청정한 마음으로 봉축하여 온 국민에게 축복이 있기를"

5월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지상의 중생이 무명에 허덕이고 있을 때 부처님은 영원불멸의 진리와 참 사람의 위대한 진리를 선언 하신 날입니다. 그것은 대자 대비한 인간 본성을 일깨우시고 어둠속에 광명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불자는 더욱 청정한 마음으로 봉축하여 이 나라 국민에게 큰 축복이 있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영광이 있으며 참 사람으로 서의 자기발전과 실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뜻 맑게 하면 곧 부처님 가르침

대한불교대원종 중정 신평 스님



무점차 중점차(無漸次 中漸次)하니, 무공용 중공용(無功用 中功用)이로다.

점점 없는 가운데 차차가 있는 것이요, 공을 드린 보람이 없는 가운데 공을 드린 보람이 있는 것이요. 부처님께서 우매한 중생들에게 설하신 것 중에 사성제와 팔정도는 우리 불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불교의 요체입니다. 팔정도는 불교수행실전에 중요한 수행덕목으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년, 정정입니다. 이러한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 때 비로소 불자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무명 태워 없애고 광명세계로

(사)대한불교염불종 중정 성인 스님



불자여러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 천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들 본래 면목이 밝고 깨끗한 불성 생명임을 깨우쳐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좋은 날 등불을 밝혀 무명을 태워 없애고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혜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한 가치를 알아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고 관세를 보살님의 대자비 광명이 항상 하기를 다함께 발원합니다.

금강같은 서원으로 정진하세

(재)전국사실사암단체총연합회 총재 각석 스님



금강같이 굳은 뜻을 세워 정진합니다. 천 번 같고 만 번 단련하면 더욱더욱 새로워질 것이요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밀밀(密密)하고도 면면(綿綿)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뜻 세우기를 산 같이 하고 마음 안정하기를 바다같이 하면 큰 지혜가 해와 같이 삼천세계를 두루 비치어 광명이 나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미혹의 구름이 다 흩어지면 만리의 푸른 하늘에 가을 달이 휘황 밝아 매사에 하는 일 만사형통 하실 것입니다.

생사는 생사이나 생사가 아니다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현불 스님



욕행구법초보정(欲行求法初步正) 약착일보분남북(若錯一步分南北) 생사생사비생사(生死死非生死) 하처경대주중주(何處更對主中主)

구법의 길 떠나려면 첫 걸음이 정적해야지. 만약 한 발짝 잘못 디디면 남북을 나누게 되니. 생사는 생사이나 생사가 아니다. 어디 가서 주인공의 그 주인을 만나려 하는고.

구법의 길은 정법의 길입니다. 구법의 첫 걸음이야말로 신심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첫걸음을 잘못 디디면 아니 디딤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진 정진 합니다.

부처님의 경지를 증득하자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관장 무산 스님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의정이 생겼거든 묵묵히 화두를 들고 정신을 모아 스스로 공안을 찾아봅시다. 자기를 알고자 하고 화두가 순일하여지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곧 다할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無記)를 통해 소소령령한 신통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비고 고요하면 광명이 성대해져서 공적영지(空寂靈知)가 무너짐도 잡뎌도 없게하며 이렇게 공부할 쌓으면 하루가 다하기 전에 한 소식을 성취할 것입니다.

본성을 보면 근본 차별이 없어

(사)호국불교조계종 중정대행 유심 스님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점이 없건만 사람의 성품에 총명하고 우둔함이 있어서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계함과 깨달은 사람은 한꺼번에 닮는 것이다.

스스로 본성을 알고 본성을 보면 곧 차별이 없는 것이니 그런 깨달음에 돈점이라는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돈오이니라. 잘나에 중생과 부처가 나누는 것이니. 중생의 마음에서 떨어지면 부처요, 부처도 중생마음 가지면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화두속에서 진분과 가분을 가려보시오.

삼독 없애고 불성 찾자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중정 운봉스님



이오칠사팔일(二五七四八日) 천하만물공일가(天下萬物共一家) 일성천하대일성(一體天下大一體) 만고불멸영불매(萬古不滅永味) 2557년 사월초파일에 천하 모든 만물이 한집을 이루었네. 한 소리 천하가 크게 한 소리를 이루었으니 만고에 멀리지 않고 영원히 매하지 않도다.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두터워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를 보기위해 치열한 정진도 하고 있습니다. 탐, 치, 자 삼독을 없애고 무명을 밝혀 지혜롭게 불성을 찾으면 이것이 해탈입니다.

우주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 법문

(사)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스님



푸르른 산 빛과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도 부처님 법문입니다. 보리넛노릇(菩提煩惱不二) 번뇌본래공적(煩惱本來空寂) 대도해재목전(大道曉在目前) 장도경육역도(將道更覓覓道)

깨달음과 번뇌가 둘이 아니라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니 큰 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도를 쥐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네.

마음에 티끌 쌓이지 않게 해야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사월이라 초파일 호시절,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잡집마다 오색 연등이 너를 너를 춤추니 어린이 어른 남녀노소가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모두가 청정 무구한 본래의 모습을 들어 내어 함박웃음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계 편 연산홍 바탕결에 춤추고, 지저귀는 꿩소리 노래 소리 중생을 위해 사바에 오신 부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이 기쁨으로 넘쳐 납니다. 내일도 모래도 매일 매일이 오늘처럼 웃음꽃 피고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지혜 허공같이 두루하네

대불교조계종 중정대행 청해 스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와 나를 구별하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구별한다면 법계의 본성을 관하여 그 세계를 보라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 빛내리라.

광대한 부처님의 지혜가 허공 같아서 일체중생의 마음에 두루하시네.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온 세계가 춤을 추고 부처님의 향기 무르익어 가네. 나무석가모니불

한번 밝혀진 마음의 등불과 같이

(사)대한불교공공조계종 중정 법운 스님



신시정법장(身是正法藏) 심무애등(心無碍燈) 조로제법공(照露諸法空) 일체개명견(一切皆明見)

몸에는 정법을 갖추었고 마음에는 걸림이 없는 등불이로다. 비쳐서 들어 나는데 모든 법이 공한줄만 안다면 일체를 다 밝게 볼 것이로다. 이 성스러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갖자.